

초가을 연밭

글 권伍信

초가을 연 밭이 가장 아름답다. 며칠 전엔 경남 함양군 삼림공원 연 밭에서 1년에 하루 한 번만 꽃을 피운다는 빅토리아 연꽃이 때마침 내린 비를 머금고 분홍색을 꽃을 피웠다. 분홍색 꽃잎이 헤가 질 무렵 아래로 처져 왕관 모양으로 변하고는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려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다. 이처럼 전국 연 밭에 관광객이 몰린다.

천년고도 경주 반월성 연 밭엔 8월에 다녀간 내외국인 관광객이 50만을 헤아린다. 전주나 부여 공남지, 경북 울진 연호지, 가시연꽃이 피는 여근곡(女根谷) 등 전국 연 밭에 붉고 흰 태를 뽐내는 연꽃들이 절정을 이루는 시절이다.

2009년 기아유적지를 조사하던 학술조사단이 경남 함양의 고대 연못 바닥에서 연 씨앗 15알을 수습해서 탄소 연대 측정을 했더니 7600년 전 고려 의종 때 연 씨앗이었는데 연꽃이 붕괴되면서 땅 속에서 깊은 잠을 자게 됐다고 한다. 이듬해 봄 5알을 심었더니 2알이 싹이 나왔다고 한다.

연 씨는 자연 상태에서 1만년이 가도 썩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인도 힌두교에서 연꽃은 신을 낳는 꽃이다. 기원전 3천 년 전에 만들어진 '베다니즘'에서 전해지는 예기로는 '비쉬누'가 바다에 떠다닐 때 그의 배꼽자리에서 연꽃이 솟아올랐다. 희고 붉은 자태의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난 자리에서 창조 의 신 '브라만'이 태어난다. 그로부터 창조 의 신이 된 '브라만'에 의해 세상 만물이 만들어 졌다고 하니 신의 꽃으로 자연스럽게 인도인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 특히 인도에선 하얀 연꽃, 백련(白蓮)은 신을 낳는 어머니로 불리 울 만큼 높은 가치를 지닌다.

연 밭을 내려다보면서 연차의 향에 취하고 나니 삼복더위가 물러나고 가을 바람이 내리는 계절이다. 코끝에서 휘감아 들어오는 향기가 그만이다. 진흙에서 뿌리를 두고 피어난 연이라 잎사귀에는 산소가 풍부하다. 연향을 제대로 맡는 사람은 술에 찌들러 있지 않고 시간을 한가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다.

정신 건강이 좋은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무더위에 지친 날 연향(蓮香)을 한 시간 가량 맡는 것은 잘 지은 보약 한 접의 효과와도 같다.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가는 세월을 붙잡으려면 제철에 나는 독특한 음식을 먹고 음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진 유배지에서 한(恨)의 세월을 보낸 다산 정약용은 죽란시사(竹欄詩史)만은 여름 연 밭 정자에서 열었다.

연차의 맛을 내려면 이른 새벽 연 밭에 나가 막 터지려는 꽃잎 속에 녹차 한 움큼을 넣고 잎사귀채로 묶어두었다가 저녁나절 마시면 온전히 연향을 맡을 수 있다.

마당가에 심어둔 수련은 그 새 한잠을 자고나 또 꽃을 피울 준비를 한다. 수련은 사람처럼 밤에는 잠을 자고 주인이 출근하는 아침시간 그 예쁜 꽃을 다시피우니 사랑을 독차지 할 수밖에. 조선(祖仙)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것이다.

인도 중국 오스트레일리아가 원산지인 연꽃은 한자와 불교 문화권에 들어와서는 군자의 성품에 비유되는 꽃이자 남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수행자의 꽃으로 비유된다.

몸은 진흙 깊은 곳에 두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한 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연잎에는 한 방울의 오염도 머물지 않는가하면 꽃이 피면 물속 썩은 냄새는 사라지고 연향만 남는다.

만동이 틀 무렵 연 꽃 봉오리는 퍽 하는 소리를 내면서 핀다. 그때의 초향(初香)은 그 시절에서만 맡을 수 있는 절대 명품이다. 특히 연꽃은 한 뿌리에서 두 송이이상 꽃을 피우지 않아 금슬 좋은 부부의 인연을, 다산과 풍요, 장수를 얻는 것으로 여겼다.

꿈에 나타나면 하루 내내 좋은 일만 생기니 모두들 좋아한다.

심자기 수시로 두근거리고 잠을 깊이 못자는 등 불안감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연 뿌리나 연 꽃의 씨를 달여 먹으면 연차(蓮茶)이상의 효험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애련설(愛蓮說)대로 살다보면 그는 군자가 된다. 장미와 절레, 백합과 나리는 꽃이 피어야 구분이 되지만 연은 태어 날 때부터 다르다. 백로(9월 7일)를 보낸 초가을 연 밭이 더 아름다우니 지금이 연 밭을 찾을 적기이다.

특별기획

權氏烈傳 ⑬

우리 대학의 이상과 나아갈 길

(지난호에 이어)

내 필생의 사업인 교육, 그 결정체인 세명대학교와 대일과학대학에 대한 나의 애정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혹시나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세명대학교 교문 앞에서 그 기둥을 붙잡고 쓰러져 울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했다.

세명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교육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인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을 통해 본 대학교의 설립 정신에 따른 국가적 지역적 사명을 다한다. 진리, 창의, 봉사의 교훈 아래 국가 사회의 유익한 인재를 양성하여 민주국가의 발전과 나아가 세계 인류 사회에 기여함을 교육 목적으로 삼는다.

학교 이름인 '세명'은 위세광명(爲世光明)에서 온 것이다. 세상을 위해 빛과 밝음을 준다는 의미다. 10개 학과에 400명이라는 작은 규모로 학교가 시작되었다. 1년 뒤인 1991년 교양관을 준공하고 기숙사와 중앙공급동이 준공되면서 학교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 해에 연구관도 준공했으며 1992년에는 4개의 학교 건물이 늘어났다.

1992년에는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을 개원했다. 학생 수와 학과는 계속 늘어나 1998년, 총 입학정원이 2,100명을 넘어섰다.

이제는 양적인 팽창보다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체제를 갖추어야 할 때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학의 교육목표는 첫



하남 제2캠퍼스 조감도

째는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전공심화교육, 둘째는 창의적 실용교육, 세 번째는 지식산업사회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한 인성교육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방패를 둘러싸고 있는 내부의 원은 태양과 동근 달(新月)의 밝은 빛(明)을 상징하며 해와 달처럼 온 누리를 밝게 비추는 세명대학교의 원대한 이상을 의미한다.

우리 학교의 교목은 '솔'은 나무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라는 뜻을 나타내는 '수리'라는 말에서 변천한 형태로 본다. 소나무는 비바람, 눈보라와 같은 자연의 역경 속에서도 늘 푸른 모습을 간직하며 깨끗한 절개와 의지를 상징하고, 절조, 의지, 충신의 상징으로 다루어져 왔다.

교화(敎花)인 '철쭉'은 우리 민족의 심미성과 슬기를 지녔다.

철쭉은 겨울을 이기는 재생의 꽃이면서 봄을 전해주는 꽃이다. 나는 대학을 정심정도(正心正道)로 운영하고자 한다.

앞으로 세명대학교가 명실상부한 국내 상위권 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첨단교육·연구지원 시설을 갖춘 인텔리전트 캠퍼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곧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이고,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다. (끝)

그동안 권영우 축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명복을 다시 빌어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이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길 믿으며, 또한 하남시로의 제2캠퍼스 이전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노동법해설 |

근로관계의 이전과 관련된 문제



권오일(북아공파 35세 한국정보평가협회 회장)

1. 개관

사용자가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근로자의 신분변동에 변동이 일어나는 근로관계가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근로관계의 변화(이전·이동)는 출장·과건·배치전환·전근·전보·전직·전출·근로자공급·도급 등 그 이름도 다양하고, 그 형태도 일률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나 편의상 인사이동, 영입의 양도·양수, 근로자 파견으로 나눌 수 있다.

근로관계의 이동과 이전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① 사용자가 인사이동 명령을 할 수 있는지, ② 인사명령에 불복종할 경우 해고 또는 다른 징계가 가능한지, ③ 기업간 인사명령을 하게 될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해야 하는지, 근로조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용종속관계는 변하는지, ④ 영입의 양도·합병·분할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근로조건 승계범위 등의 문제가 노사간의 갈등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사이동의 분류

인사이동은 크게 기업내 인사와 기업간

인사로 나눌 수 있다.

① 기업내 인사이동은 주로 효율적인 경영운을 위한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자기계발을 통한 근로의욕 증진, 기술혁신과 자동화에 대처하거나 조직의 확대 또는 축소 등이 원인이다.

② 기업간 인사이동은 경영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소장, 자회사, 분사 등의 이름으로 사업부문을 분리·독립시키거나 그룹계열사 차원에서 우수인력의 확보·배치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인사이동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는 특별한 규정없이 법 제23조에서 해고·징계와 묶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사이동의 개념을 전직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인사이동이나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인사이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여기서는 기업간 인사이동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내 인사이동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끝)

3. 기업내 인사이동

기업내 인사이동은 근로자의 직종, 직무내용, 직급, 근로장소 등을 장시간에 걸쳐 변경하는 것이다.

기업내 인사이동은 다시 전근과 배치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밖에 다른 장소에 일시적으로 파견시켜 일을 시키는 출장, 작업지원 등도 기간이 길어지면 전근 등과 같이 취급되고,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면 기업간 인사이동이 될 수도 있다.

기업내 인사이동에 따라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재량권이 인정된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끝)

가나기획

대표 권도현
(군항우회 고문)

생산 판매 상패·트로피·각종 행사기념품 기타 판촉물

서울 중로구 돈화문11길 2호(모동 169-1) TEL : (02)741-7191~3 Fax:(02)741-7193
Mobile : 010-5281-7191 E-mail : kana7191@hanmail.net http://www.sp1.co.kr

安東權氏馬·昌·鎭海宗親會 70周年記念

宗親會 權門發展會 靑壯年會

宗親會: 고문 권재호, 권도현, 권정현, 권영훈 / 총친회장 권태형 / 부회장 권오수 / 감사 권오웅, 권정렬 / 총무국장 권재천 / 재무국장 권금현 / 직전회장 권영건 / 위원 권진구, 권오천, 권경업

權門發展會: 회장 권오수 / 부회장 권재천 / 감사 권오운 / 사무국장 권택생 / 회원 권일수, 권혁문, 권영삼, 권오석, 권윤상, 권재부, 권오경

靑壯年會: 고문 권중수, 권순일 / 회장 권영봉 / 부회장 권규석 / 사무국장 권재도 / 재무국장 권순표 / 직전회장 권성진 / 회원 권태호, 권영민, 권의택, 권춘근, 권택현, 권오영, 권중경

경쟁하는 100만 축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산·창원·진해 종친회는 1948년 총회를 개최한 이래 아래와 같이 축친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혁

- ▶1948.9.20. 고 권태욱 외 16명 총회 개최
- ▶1968.5.20. 부녀회 권수연 외 30명 총회 개최
- ▶1975.10.20. 청·장년회 권재경 외 21명 총회 개최
- ▶1984.3.20. 화요회 권재일, 권태형 외 27명 총회 개최
- ▶2011.4.23. 권문발전회 권오수 외 16명 총회 개최

총친회장 권태형

100만 축친은 마산·창원·진해 종친회 여러분들의 화목과 만사 여의(如意)하심을 기원 드립니다.